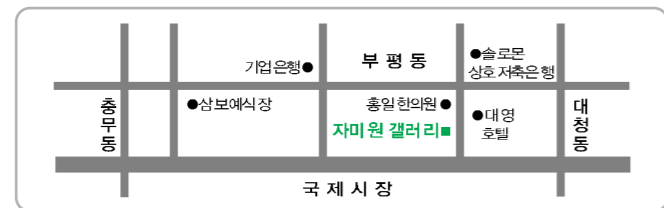




**황보 귀 동** (皇甫 貴 童/HWANGBO, KUY- DONG)

- 개인전(초대포함) 11회(서울, 부산, 울산)
- 국내외 초대전 및 단체전 이백여 회
- KBS 2TV 「드라마 시티, 서양화 협찬
- KBS 1TV 「부산 아침마당, 문화 스페셜」  
서양화 소품 제공
- 현 한국미협, 청색회 회원  
부산 성일여자고등학교 재직  
동주대학 출강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60-1 성일여자고등학교  
T. 051-206-8171, 019-525-0017  
· maxi.m17@hanmail.net

畫廊紫微垣  
**gallery**  
JAMIWON 600-806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2가 66 TEL : (051)242-1828



【 2007 갤러리 자미원 초대전 】



추상유희, acrylic color, 53x45cm, 2007

**황보 귀 동**  
INVITING EXHIBITION BY HWANGBO, KUY-DONG

**추 상 유 희**  
2007. 6. 13(수) - 6. 22(금) : 10일간  
개화식(開畫式) : 6. 13(수) P.M 6:30

畫廊紫微垣  
**gallery**  
JAMIWON  
600-806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2가 66  
TEL : (051)242-1828

후원 :  
브로드웨이42번가 **PRIDEN** 프라이덴치과 **협심일D&P**

## 작가 황보 귀 동의 작업 철학과 흐름

예술은 인간의 실존가치를 상승 시킵니다.

작가의 작업과정을 11회의 개인전을 통해 살펴보면, 1회(94년) '환상 만들기'는 인간의 내면적 고뇌와 억압된 아픔을 투쟁적·충동적·반목적인 민중예술을 현실사회에 표출한 사실적 심상작업은 인간의 진실성과 민초의 아픔을 엿볼 수 있었다. 2회(95년) '벽 그리고 나'에서는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작가의 유희로 현실 세계에서 시공을 탈출하여 또 다른 피안의 세계를 찾아 나서려는 구도자적 의미를 느꼈다. 3회(96년) '나무-image 색과 선'에서는 작가의 현실적 방황으로 부터 탈출의도가 노출돼 있었으며, 자연에 대한 경외를 느끼고 삶의 안정적 변화를 의미하는 자연회귀의 귀착으로 나무와 인간, 즉 자연과 인공의 대비와 심적 안정을 표현하고 있다.

4회(97년) '손-공격성, 비공격성'에서는 이제껏 구상 표현의 파격으로 작가의 본능적 미적체험의 효시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색의 대비와 바리에이션이 있는 추상 작업으로 포용과 관조적 의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5회(98년) '꽃-보는 것으로 부터의 탈피'와 6회(99년) '들꽃의 힘'에서는 시적 꽃그림은 미의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7회(00년) '산-그 무거움에 대하여'는 자연의 미적 대상인 산은 작가에게 경외의 대상이며 겸손의 의미로 구상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지리산, 가지산, 섬진강과 사랑도로 이어지는 연작 표현은 인생의 내존적 욕구 표출을 읽을 수 있었으며 이것은 그 해 가을 8회 '아! 지리산'에서 그 표현의 귀결점이 되었다. 9회(04년) '4월의 향기'에서 자연 속 꽃들의 구상 표현으로 자연의 색을 인간의 향으로 음미할 수 있었고, 여기에 같은 해 10회(04년) '동강-천국의 숨결'에서 산의 장엄함 속으로 비단치마 같이 굽이쳐 흘러 들어가는 물결의 흐름은 人, 山, 色, 水의 동화로 인간에 대한 초극의 미를 형용하고 있었다.

작가의 작업정신을 이상의 과정으로 인식해 보면, 심적 idea를 표상관념으로 외현시켜 보편적 인간에게 예술의 영적快를 전해주려는 작가의 노력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왔다.

서양 미학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무의식 속에 침착되어 있는 심적 리얼리즘을 현실 속으로 전치시키기 위한 자신의 창조 욕구를 추체협하고 재발견함으로써, 도달 가능한 의미의 심층과 진실의 심층을 밝혀 보고자 하는 그만의 고뇌를 추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그의 작품 주제인 '추상 유희'를 분석해 보면 이상적, 도덕적으로 향하는 형식충동(형태)과 감정적, 욕망적으로 향하는 실질충동(생명)을 조화롭게 일치시킨, 완전한 인간상을 창조하려는 혼의 표출인 유희충동은 오직 인간만이 유희할 수 있으며 유희할 때 진정한 인간임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작품에서의 비기하적, 부정적 추상표현은 작가의 미적 경험을 관조적 우아미와 존엄미로 일치 시키려는, 다시 말하면 칸딘스키의 선율적 구도와 교향적 구도를 연결시켜 그 대상적 요소를 멀리하고 구도적 요소가 무너질 때 안정과 정적의 반복, 동등한 분배에 대한 감정에서 구축되는 것으로 자신만의 독창적 구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양철학적으로 사유해 보면 강렬한 색채의 변화와 천체의 prominence 형태적 표현은 동양 사상의 오행 중 오방색의 묘사로 융합과 조화의 완전한 인격성으로 표출된 격의 완성으로 불가의 화선일여 畫如의 세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치한 저의 초대에 신운자현 神韻自顯한 작품을 큰 웃음으로 보내주신 작가님께 고개 숙여 고마운 뜻을 올립니다.

2007년 6월 13일  
갤러리 자미원 관장 김민호(한의학박사)

## ‘抽象遊戲-偶然과 感性的의 絶叫(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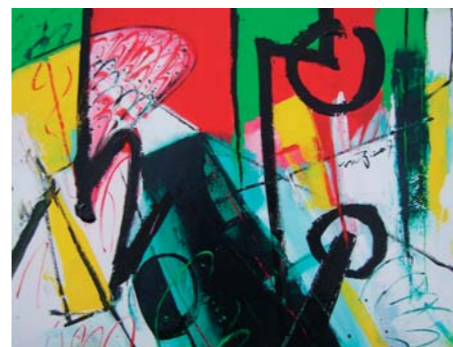
1. 늘 전시를 하면서도, 개인전은 부담이다.  
세월이 갈수록 쉬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끝없이 반복된다.  
그림을 그린다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는 미술학원을 일부러 보내지 않았다.  
머리 아프게,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둘 다 미술하고는 거리감을 두었다. 고맙다. 다행이다.
2. 선을 긋고, 무의미한 형태를 그려보고, 느낌이 가는대로 색을 칠한다.  
어차피 미술도 인간의 행위이고 몸짓이라면, 순수하게 가장 밑바탕의 표현을 하고 싶었다. 때로는 미친듯이 휘몰아치고, 마구 긁어내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형태를 그려도 보고, 색이 가지는 모든 성질을 다 느껴보려 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놀이이자 즐기이며, 완전한 유희가 된다.  
정말 최고의 고수는 일필휘지(一筆揮之)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미술에 있어 가장 완벽한 선(善)이다.

3. 모든 미술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선과 면, 색채 등 추상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재현시키는 구상개념과는 달리 대상의 재현을 부정하고, 내적인 감성과 우연의 효과에 집착하여 그것만을 표현코자 하는 추상표현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외적 형태나 느낌에 반(反)하여, 또는 무시하여 전혀 상관없는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보여 주고자 함의 발현이라 보면 될 것이다. 내적인 영혼의 울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 속에서 찾는 작업, 규칙이나 규범을 탈피한 자유로의 여행이다.

이것은 우연의 효과와 내적 감성을 뒤섞은 외침, 이른바 절규이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절규-抽象이다.

2007. 황보 귀 동



추상유희 acrylic color. 72x53cm. 2007



추상유희 acrylic color, 72×60cm, 2007



추상유희 acrylic color, 65×45cm, 2007



추상유희 acrylic color, 37×45cm, 2007



추상유희 acrylic color, 72×60cm, 2007



추상유희 acrylic color, 53×45cm, 2007



추상유희 acrylic color, 37×45cm, 2007



추상유희 acrylic color, 37×45cm, 2007



추상유희 acrylic color, 45×37cm, 2007